

민선 7기 초대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정

전승보 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시감독 공정성·전문성 확보 주력... 경영자질 높이 평가

민선 7기 광주시 초대 시립미술관장에 전승보(54) 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시감독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최종 합격한 전승보 씨는 세종대학교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대학원 미술행정 및 큐레이터십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2008부산비엔날레·세종문화회관(2014)·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2015~2018) 전시감독 등을 역임한 문화예술계에 정통한 현장 전문형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1996년 (재)광주비엔날레 전시 부장을 시작으로 2013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를 위한 상설전시 책임연구자로 활동하는 등 광주 문화예술계와의 인연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1년 싱가포르미술관에서 한국현대미술 학술세미나 기획·진행 및 2009년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 '요코하마 프랑스비디오 컬렉션 전시' 공동

큐레이터 등 국제 활동을 통해 국내 미술 작가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네트워킹에 상당한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달 13일 광주시립미술관 임용과 관련해 "광주 미술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미술계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안목과 전문적 리더십을 지닌 최고의 미술관 경영CEO를 모시겠다"면서 연고주의·낙산 인사 배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시립미술관장 응모에 역대 최대 17명이 지원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광주시는 면접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인사혁신처에

면접위원을 의뢰해 엄정한 면접심사를 진행했고, 면접 심사위원들이 전승보 씨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승보 씨는 '해외 네트워킹·현장 전문가형 CEO'로서 면접 위원 모두가 자질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며 "앞으로 광주미술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무대로 지평을 넓혀 가는데 소통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활발한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합격된 전승보 씨는 신원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9월중 임명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시청 접견실에서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세계수영대회 전 세계인 참여를”

이용섭 시장, 제임스 최 호주·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 접견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제임스 최 호주 대사와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를 잇따라 접견하고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지구수영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이 시장은 제임스 최 호주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 7월12일부터 31일 간 광주에서 세계 5대 메가스�포츠 중 하나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며 "전 세계에서 10억여 명이 시청하는 메가 이벤트이므로 호주에서도 많은 이들이 참여

하도록 제임스 최 대사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에 제임스 최 호주 대사는 "호주 정부의 내년 주요 일정에 이미 광주수영대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회 기간에 광주를 직접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이에 앞서 수영인들의 참여도 독려하겠다"며 "이번 대회 개최를 계기로 광주의 이미지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시장과 제임스 최 호주 대사는

△친환경자동차 산업 △에너지밸리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 시장은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뉴질랜드 수영 동호인들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많이 참가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에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는 "내년 광주수영대회에 뉴질랜드에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며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市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청신호

민간사업자 공모에 2개사 사업계획서 제출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2차 공모에 (주)호반과 국제자산신탁(주) 등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다고 9일 밝혔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지역의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

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년 이상 담보상태인 광주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민간사업자 2차 공모를 실시해 왔다. 이번 사업계획서 접수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을 확정해 사업계획서 평가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과정에 시민평가단이 참여하면서 시민 알권리 충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동구, 충장축제 준비 막바지 분주

임택 청장 “방문객 안전·편의 확보 중점”

대한민국 최대의 도심 길거리 문화예술축제인 '제15회 추억의 충장축제' 개막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구가 축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8월 축제 세부 프로그램 및 개막식 연출을 확정하고,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발자전거, 저글링, 대형피에로 등을 등장시켜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구 조흥은행 건물에서 운영된 '추억의 전시관'은 자리를 옮겨 신서석로 일원에 '추억의 테마거리'를 만든다. 70·80년대 음악다방, 전파상, 문방구, 오락실 등을 재현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포토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충장축제는 '추억, 세대공감!'을 주제로 '서커스'와 '청바지'를 콘셉트로 정했다. 개막식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서커스 콘셉트를 도입하고, 추억과 청춘의 상징인 청바지는 축제의 드레스코드를 넘어 소통의 코드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거리 곳곳에 청바지 관련 조형물, 조명 등을 활용해 상징성을 강화하는 한편 청바지 리폼경연, 청바지 서포터즈 등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라곤텐츠인거리퍼레이드에서도 커스를 콘셉트로 한 이색퍼레이드카를 등장시킬 예정이다.

또한 금남로 4·5가에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조성한다.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젊음의 거리'는 다채로운 공연과 플라마켓 등이 운영되고, 지역 상인들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추억의 충장축제는 지역민들의 참여와 소통,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공감을 통해 아시아대표 길거리축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면서 "남은 기간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ghszk@

문인 복구청장, 민생현장 목소리 들어

운암시장 시설 개선·범죄 예방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논의

문인 복구청장이 운암시장을 현장 방문해 주민 및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주 복구는 문인 복구청장이 최근 운암시장을 찾아 운암동 주민 및 시장 상인들과 만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 구도심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필요하다"며 "1981년 개설된 운암시장 역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되고 있어 시설물 현대화 사업과 운암시장만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서 주민과 시장상인들은 "운암2동 지역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는 등 지역이 정체되고 있고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암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운암2동 지역은 노후주택과 재건축 단지로 조성된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주거지역으로 골목길이 많은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1981년 개설된 운암시장 역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되고 있어 시설물 현대화 사업과 운암시장만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화재 등 운암시장 시설물 안전을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으로 추진 예정인 화재실 개보수사업을 변경해 노후 전기설비 보수와 소방 안전시설 정비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과 골목길이 많은 동 특성성을 감안, 귀갓길 주민들과 여성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운암시장 및 서영대 일원 2개소에 로고젝터, 쏠라 표지등을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해당 지역(운암동)의 구의원(주순일·양일욱·임종국)들도 함께 자리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곳으로 가요

다가오는 가을,
지리산에서 추억을 쌓아보세요!

▲ 노고단

해발 1,507m의 지리산 중주 코스 출발점으로 유명하다.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 3대 주봉으로 꼽히는 노고단에서 내려다보는 운해, 봄의 절정, 여름의 원추리, 가을의 단풍, 겨울 설화 등 철마다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노고단과 산오이풀

자연의 아름다움
구례군/구례군의회